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의 꿈을 키우다



교육공동체 제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컴퓨터 수업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

교육공동체 제프는 '다양한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공간이자 공동체'를 표방하며 2008년 문을 열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자립 지원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13년간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을 만났다. 그러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정착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하며, 동시에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시행하면 청소년들의 자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구상은 2020년 아산재단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었다. 가출 청소년들의 일상을 기록하고 근로 청소년으로 성장시키는 '일하는 청소년 - 위기, 노숙 청소년의 당사자 아카이브' 사업은 그렇게 시작됐다. 당사자 아카이브란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의 일상을 사진과 영상으로 수집해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출 청소년들이 촬영한 '나의 일상'

교육공동체 제프의 홍도미 대표와 교사들이 길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가출 사유는 부모의 폭력, 학업성적에 대한 집착 등으로 다양했다. 가정 안에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기댈 수 있는 어른은 찾기 힘들었다. 아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집을 떠나는 것이었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에 가는 것도 꺼렸다.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질 것이 두려워서였다. 부모와 다투고 옥해서 가출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으로 일찍 돌아가지만, 오랜 세월 축적된 갈등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경우에는 생채기를 봉합하기가 쉽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일하는 청소년 - 위기, 노숙 청소년의 당사자 아카이브' 사업은 가출카페 SNS 계정을 통해 참여자 모집 홍보를 진행했다. 상담을 거쳐 일회성 활동으로 끝낼 것인지, 장기적으로 만남을 이어갈 것인지 결정을 하고 문자나

SNS 등을 통해 촬영한 사진들을 주고받았다.

총 22명의 가출 청소년들이 1인 창작자로서 사업에 참여했다. 그들이 보내온 사진만 1천여 장. 창작자들에게는 사진 1장 당 1천 원의 활동비가 지급됐다. 아이들이 처한 경제적 현실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니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탈의 주제들을 기록해 보겠다는 건 그들 스스로도 현재의 삶을 벗어나고 싶다는 의지로 읽혔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공동체 제프와 청소년들은 서로 신뢰를 쌓아가며 친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건강한 자립을 위한 새로운 시도

홍도미 대표는 최근 아이들의 가출 양상도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가출은 반복적입니다. 청소년들은 가출을 거듭할수록 생존기술이 늘고, 스마트폰이 가져온 시공간의 확장은 불법적인 공간으로 아이들을 끌어들이습니다. 우리가 만난 가출 청소년의 부모 상당수가 폭력을 수반하고, 아이들에 대해 무지했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 자신의 틀에 가두고 활동을 제한하며, 이웃과의 교류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관계 맺기와 홀로서기를 집 밖에서 스스로 해야만 했다. 그러다보니 비행, 유희, 사기, 범죄 등에 빠지기도 했다. 교육공동체 제프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자립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아이들의 미래와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였다.

제프는 신뢰를 쌓은 청소년들에게 지역 상가를 배경으로 유튜브를 찍게 했다. 그리고 임시 숙소를 마련해 가출 청소년들이 한 거주지에서 머물며 생활하도록 유도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카페·식당 주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눈 맞추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정상적인 일자리를 갖게 하기 위한 첫 작업이었다. 유튜브 영상 촬영을 통해 아이들은 상가 상인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됐고, 추후 직업 교육과 인턴십을 요청할 때에도 부드러운 접근이 가능했다.

청소년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열어준 지역사회 상인들

홍도미 대표와 제프 교사들은 아이들과 상가에 있는 음식점과 카페 등을 방문해, 단골이 될 즈음 넉넉히 “아이들을 일하게 해달라”고




직업을 통해 안정된 자립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일탈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해나가고 있다.

사장들에게 제안했다. 사전에 바리스타, 목공 교육 등을 통해 아이들이 필요한 지식을 익히게 했다. 건강한 일자리가 아이들을 바로 서게 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게는 아이들이 직업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 제공처가 됐다. 이러한 노력으로 도봉구 지역의 상가협의회 등 상가 12곳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떡집, 카페, 한식 음식점, 목공방 등 협력을 맺은 상점도 다양했다.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카페에서 2~3개월 아르바이트 경험을 쌓은 김경민 군은 성실하게 일하며 자립의 기회를 얻었다. 이후 경민 군은 제프 교사들의 설득으로 현재는 집으로 돌아가 학교도 잘 다니고 있다.

청소년들은 주 2~3회, 하루 3~4시간의 노동을 통해 상당수 자립의 안정을 찾는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학교에도 갈 수 있어 일상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말 자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 5일 근무도 기꺼이 수행한다. 믿을만한 어른들과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낀다.

교육공동체 제프는 앞으로 청소년들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들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강사를 초빙해 전문자격증 교육을 시행하고 직업 체험을 확대해 아이들을 지속 가능한 직업 역량을 갖춘 근로자로 성장시킬 예정이다. 또한 가출 청소년의 현실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발표해서 정책적 지원도 유도할 생각이다.

가출 청소년을 훈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믿어주는 어른들, 그리고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변화는 지금 시작되고 있다.  글 이지연